



르노삼성자동차 더 뉴 QM6.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 '더뉴QM6' 국내 SUV 판매량 1위 트렌드·고객 두토끼 잡았다

QM6 GDe, 가솔린 SUV시장 개척 소비자 요구 맞춰 파워트레인 선택

르노삼성자동차 '더 뉴 QM6'가 다시 한번 '대박'을 냈다.

르노삼성차는 지난달 더 뉴 QM6가 국내 SUV 중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더 뉴 QM6는 지난해 6월 출시된 QM6 부분변경 모델이다. QM6 GDe로 가솔린 SUV 시장을 개척했으며, 더 뉴 QM6에는 LPG 연료를 쓰는 LPe 모델을 처음 선보이며 새로운 도전에 성공했다.

더 뉴 QM6는 출시 직후인 지난해 7월 4262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고, 11월까지 누적 2만3237대로 2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12월에 7558대를 판매하며 1위를 차지하게 됐다.

그 중에서도 더 뉴 QM6 LPe는 전체 판매량 4만7640대 중 43.5%나 됐다. '도넛 탱크'를 탑재해 높은 연비와

정속성, 공간 활용성까지 갖춘 덕분에다. 아울러 더 뉴 QM6에는 1.7l 다운사이징 디젤엔진도 새로 추가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했다.

르노삼성차는 더 뉴 QM6 성공 요인을 '고객을 위한 가치 추구'와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이라고 분석했다.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한발 앞선 파워트레인을 선보이고, 이에 걸맞는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

르노삼성자동차 김태준 영업본부장은 "'고객을 위한 가치 추구'도,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도 결국 그 중심에는 고객이 있다.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만들어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며 "르노삼성자동차는 더 뉴 QM6를 통해 이 같은 공식을 입증했으며, 2020년 새해에 출시할 신차에도 이러한 르노삼성자동차만의 가치를 담아내어 고객들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는 제품을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U+tv 고객이 자녀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U+tv' 이용자 절반, 아이들나라로 유입

LGU+, 서비스 가입이유 설문 가입 혜택, 결합 할인 혜택 順

LG유플러스의 'U+tv' 이용자의 절반이 영유아 특화 서비스인 '아이들나라'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TV(IPTV)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U+tv를 이용 중인 고객 중 75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 이유를 묻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아이들나라'로 응답한 가구가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가입혜택' 때문이라고 응답한 고객은 44%로 2위를 기록했으며, 모바일 '결합할인 혜택'으로 응답한 고객이 33%로 그 뒤를 이었다.

아이들나라를 월 5회 이상 이용한 고객의 해지율은 5회 미만 이용 고객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빅데이터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온라인상 언급량 56%, 내용 호감도 46.9%를 기록했다.

설문 응답자 중 5~7세 자녀를 둔 부모 고객들은 ▲유튜브 광고, 유해 콘텐츠 등 시청 고민을 유튜브 키즈로 해소 ▲타사 대비 다양한 무료 콘텐츠 ▲대형 출판사 전집 위주가 아닌 베스트셀러를 구연동화 작가가 직접 읽어주는 리딩 방식 ▲누리 과정의 연령대별 과 정별 월별 체계적 구성 등을 아이들나라의 장점으로 꼽았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아이들나라의 증강현실(AR)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케이블TV에도 아이들나라를 적용해 LG헬로비전 고객들도 특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삼성전자, 2020년형 'QLED 8K' 신제품 공개

기술 총집합... TV스크린 새 기준

'CES 2020' D-2

화면 베젤 없는 '인피니티' 디자인 화질 관계없이 8K수준 고품질 변환 주위 환경 인식, 화면 밝기 자동조정 최적의 사운드 찾아주는 'Q-심포니'

삼성전자가 7일부터 10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0'에서 2020년형 'QLED 8K' 신제품을 공개한다.

2020년형 QLED 8K는 한층 진화한 AI 기술로 화질에서 사운드, 스마트 기능까지 제품 전반에 걸친 혁신을 이뤘다. 또한, 화면 베젤을 없앤 '인피니티' 디자인을 적용해 TV 스크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더 완벽해진 화질... 딥러닝 적용 'AI 퀀텀 프로세서'

삼성전자는 2020년형 QLED 8K에 머신러닝과 딥러닝 방식을 결합한 AI 퀀텀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딥러닝 방식 적용으로 원본 영상의 화질에 관계없이 8K 수준의 고품질로 변환해 주는 업스케일링 기능을 한층 강화해 복잡한 윤곽과 질감을 더 섬세하게 표현한다.

또한 2020년형 QLED 8K는 '어댑티브 픽처' 기능이 새롭게 적용돼 어떤 시청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밝기와 명암비를 제공한다. TV가 주위 환경을 인식해 자동으로 화면 밝기를 조정한다. 삼성전자는 영상 스트리밍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 손실을 줄여 주는 'AI 스케일넷' 기술도 탑재했다. 이 기술은 아마존과의 협업을 통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앱의 영상에 적용될 계획이다.

◆더 풍부한 서라운드 사운드

2020년형 QLED 8K는 풍부한 사운드 구현을 위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영상 속 움직이는 사물을 인식해



2020년형 QLED 8K 신제품 'Q950TS'

/삼성전자

사운드가 TV에 탑재된 스피커들을 따라 움직이는 기술인 'OTS+'가 적용됐다. 이 기술을 통해 TV만으로도 5.1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구현이 가능해져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 등 화면에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몰입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TV와 사운드를 연결해 사용할 때, TV와 사운드의 스피커를 모두 활용해 최적의 사운드를 찾아주는 'Q-심포니' 기능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 기능은 CES 최고 혁신상을 받았으며, 집 안 전체에 더욱 풍성하게 전달되는 9.1.4채널의 고품격 사운드를 선사한다. 또한, TV가 주위 소음을 인식해 영상 속 화자의 목소리 볼륨을 조정하는 'AVA' 기능도 탑재했다.

◆'인피니티' 디자인 적용

2020년형 QLED 8K는 화면 베젤을 없앤 인피니티 디자인이 특징으로 화면의 99%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또한, 15mm 초슬림 디자인과 완전히 평평한 뒷면을 구현해 명품 스크린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다.

◆AI·연결성 기반 사용자 경험 혁신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니버설 가이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콘텐츠 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했다. 또, 삼성 스마트 TV 사용자라면



2020년형 QLED 8K 신제품 'Q950TS'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TV 플러스'는 뉴스,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내 글로벌 기준 120여 개 채널을 제공할 예정이다.

TV를 보면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멀티뷰' 기능도 탑재했다. 사용자들은 '나란히 시청'부터 '화면 속 화면' 방식 등 원하는 형태로 2개의 콘텐츠 동시 시청할 수 있다.

2020년형 QLED 8K는 음성인식 서비스 폭도 넓어졌다. TV 기능 제어와 콘텐츠 경험에 최적화된 삼성 빅스비 외에도 아마존 알렉사와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삼성 갤럭시 20·클램셀 폴더블폰 베일 벗는다

내달 11일 미국서 '언팩행사' 개최 갤럭시 S10 후속작, 버즈 등 공개 전망

삼성전자가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갤럭시 S10'의 후속작과 클램셀(조개껍질) 형태의 폴더블폰 언팩(공개) 행사를 연다.

삼성전자는 내달 11일 오전 11시(현지 시간, 한국시간 12일 오전 4시)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신제품 언팩 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에 초청장을 보내고, 새로 출시될 스마트폰에 관한 힌트를 영상으로 공개했다. 언팩 행사에서는 갤럭시 S10 시리즈의 후속 제품과 가로축을 중심으로 접는 클램셀 폴더블폰,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의 후속작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언팩' 포스터.

/연합뉴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갤럭시' 철자 중 알파벳 a를 대신해 흰색 사각형 모양이 회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a를 대체한 직사각형은 갤럭시 S10의 후속작을, 두 번째 a를 대체한 정사각형은 클램셀 폴더블폰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와 함께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새로 출시될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이라는 예상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움에서 갤럭시 S10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 등 스마트폰

과 갤럭시 버즈, 갤럭시 워치 액티브, 갤럭시 핏 등 웨어러블 기기를 공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 미국 뉴스를 통해 정사각형 카메라 모듈이 탑재된 갤럭시 노트 10 라이트를 공개했다.

갤럭시 S10 시리즈 후속작에 대한 궁금증도 불거지고 있다. 외신과 업계에서는 갤럭시 S10 시리즈의 후속작 명칭이 갤럭시 S20, 갤럭시 S20 플러스, 갤럭시 S20 울트라(가칭)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아울러 이 행사에서는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폰도 공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화면 상단 중앙 카메라를 제외하고 전체를 화면으로 채운 '홀 디스플레이'와 후면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격은 갤럭시 폴드(239만8000원)보다 저렴한 100만원대 중후반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나인 기자